

##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 분석\*

A Time-Series Analysis on the Household Educational Expenditure\*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 전공  
조교수 이성림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Assistant Professor : Lee, Seonglim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 | V. 요약 및 논의 |
| III. 자 료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s and trends in the household expenditure in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Between 1982 and 2000, the level of the total educational expenditure increased by 5% in each year on average, increased by 2.2% for public education, and by 11.4% for private education. On the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elasticity was 0.2 and the price elasticity was 1.49. On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elasticity was 1.5 and became below 1 after 1998, and the price elasticity was 2.63.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ducational expenditure was necessary rather than luxurious and there was excess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The level of the educational expenditure would continue to increase without reforms both in the supply and demand sides.

**주제어(Key Words):** 교육비지출(educational expenditure), 가계의 공교육비지출(household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사교육비지출(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소비지출 탄력성(consumption expenditure elasticity),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 이 논문은 2001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1년 한국소비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성영애, 양세정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I. 서 론

가계가 지출하는 교육비는 크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된다. 공교육비는 법적인 예산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가계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육(기)성회비의 형태로 공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가계가 지불하는 사부담 비율이 1998년 현재 42.6%로 OECD 국가의 평균 사부담을 13.4%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교육의 사부담 비율은 83%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 사부담을 23%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가계에 대한 공적인 학자금 보조수준은 대학교육예산의 3%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8%의 6분의 1 수준에 그친다(OECD, 2001).

사교육비는 법적인 예산, 회계, 결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가계에서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용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55.8%가 과외학습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지출한 과외비는 학생 1인당 평균 88만 9천원, 과외를 한 학생 기준으로는 평균 133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하고 있는 과외의 종류는 입시 및 보습학원(28.8%)과 특기/재능학원(25.6%), 학습지/통신과외(23.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0년도 총과외비 규모는 약 7조 1천 2백 7십 6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교육인적자원부, 2001) 이는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처럼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하여 가계의 교육에 대한 지출부담은 매우 크다.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많은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선행연구는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에 중점을 두고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학생의 학교별로 사교육비 지출 내역과 지출 규모를 자세히 분석하여 사교육의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을 지출하는지와 교육비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여 사교육비 지출의 충량적 규모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지출의 단위를 구성하는 가계를 중심으로 교육비 지출의 전체 모습을 밝힌 연구는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학생의 학교별 사교육비 지출, 재능과외, 보충수업과외, 기타 사교육 지출 등의 각 나무들이 구성하는 가계의 교육비지출이라는 숲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조망해 봄으로써 선행연구와는 다른 각도에서 교육비지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 대입본고사 폐지와 과외금지 조치를 필두로 다시 대입 본고사 부활 및 폐지, 내신성적제, 쉬운수능의 90년대 말 교육개혁 작업에 이르기까지 과거 20년 동안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실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었던 과거 20년 동안 사교육과 공교육을 포함한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교육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가계의 교육비 지출 추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지출 경향을 예측하며 이를 근거로 가계의 교육비지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로 통계청의 1982-2000년 도시가계연보를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연보에는 가구의 학생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소득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미비점이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시계열적인 지출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지금까지의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고 3장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특성과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장에서 주요 분석 내용은 먼저 가계의 평균 교육비지출수준과 연간 증가율,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지출 비중,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여 가계의 총교육비 지출 추이를 고찰하고, 그 다음으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 수준과 연간 증가율, 교육비에서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지출탄력성, 교육비 물가, 그리고 가격탄력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공교육비와 사

교육비의 지출 특성과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필수적인 지출이며 사교육에 대해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교육 수요의 절감 또는 교육공급 측면에서 개혁없이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고 향후에도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리라는 전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토대로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 II. 선행연구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칠경(1990)은 1968년 중앙교육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조사결과(1977, 1982, 1985년)를 토대로 80년대 까지 사교육비지출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교육비총량규모는 1968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1977년 이후 사교육비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사교육비 지출 양태의 변화를 보면 60년대에는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잡부금이 사교육의 주종이었던데 반해 80년대에는 영체능교육등 과외활동비와 부교재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또한 60년대에는 주로 중등교육에만 사교육비지출이 집중되었던데 반해 80년대에는 초중등교육을 막론하고 지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홍주 외(1998)에서는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조사자료를 통하여 최근의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 연간 1인당 사교육비가 유치원생 155만원, 초등학생 330만원, 중학생 206만원, 고등학생 233만원으로 나타났고 주요 사교육비 지출 내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특기 및 재능학원비가 각각 47.4%, 41.2%, 중학생은 특기 재능학원비 25.4%, 입시학원비 25.0%, 일반계고등학생의 경우 입시학원비가 16.6%를 차지한다. 1977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1로 하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지수를 통하여 사교육비 지출 수준의 변동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지수가 1998년에 19.55로 나타나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중학교 10.23, 유치원 9.48, 일반계고 7.12의 순으로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지출과 관련된 주요 연구 주제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인지에 대해서다. 정영숙(1997)은 대구, 경산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학부모 514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통하여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사교육비지출수준은 학부모의 학력이 높고, 주관적인 계층귀속의식이 상위층인 경우, 본인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이 인적자본 축적보다는 선별기능(signaling)이 있다고 믿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녀의 성적 비율은 사교육비 지출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김인숙·여정성(1996)은 서울에 거주한 초등학교 2, 4학년생 학부모 761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수준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박기백(1998)은 '93, '95, '96 대우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과 조세,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의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과외비지출이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수준이나 간접세율,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자녀 연령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을 가계의 의무적인 지출로 보았다. 문숙재 외(1996)는 교육을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로 보고 교육적인 투자는 가족상황과 가정의 재정상태의 영향을 받는다는 인적자본이론에 입각하여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상황과 가계의 경제 상태의 영향을 밝히고 있다. 분석자료로 1993 대우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연간 공교육비 지출은 약 140만원, 사교육비지출은 148만원, 총 교육비 약 22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첫 자녀의 연령이 취학전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 공교육비에 비해 사교육비의 지출이 높고 중·고등학생

인 경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으며 대학생인 경우 공교육비지출이 사교육비 지출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교육비지출은 첫 자녀가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거주지역이 도시일 때 증가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앵겔계수가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가 받는 부담감에 대한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김인숙·여정성(1996)에서는 학습교육비가 재능교육비보다 가계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다수 가계가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주관적인 압박감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박배진(1997)은 첫 자녀가 중학생인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가 재정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월·박배진(1999)이 서울 및 성남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868 가구로부터 얻은 자료를 사용하여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부담감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사교육부담감이 많을수록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이 낮아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큰 가계의 경우 오히려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245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이용한 정영숙(1996)에서는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의 경제적 복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과다한 교육비 지출문제 해결에 관하여 올바른 교육문화의식과 제도가 정립되지 않는 한 외외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사라지지 않으며(정영숙, 1999) 공교육이 아무리 내실화 되고 질이 높아진다고 해도 남들과는 차별적이고 추가적인 경쟁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과외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다는 제언(양승실, 2001)이 나오는 한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의 충실화 또는 정상화(윤철경, 1990; 김인숙, 여정성, 1996; 문숙재 외, 1996, 김홍주 외 1998),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축하는 교육정책적 차원의 대책 마련

(김인숙, 여정성 1996),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재능교육의 확대실시(문숙재 외, 1996; 김인숙, 여정성, 1996, 김홍주 외 1998)를 주축으로 하는 공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박기백(1998)은 공교육비의 증가가 과연 사교육비의 감소로 나타날지를 사교육과 공교육, 기타재화를 통한 개인 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하여 예측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대체적인 성격이 강하면 공교육비의 증가가 사교육비의 증가로 나타나고 따라서 공교육비의 증가가 반드시 사교육비의 감축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개인들의 교육투자 수익성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공교육비의 증가-는 오히려 중산층의 사교육비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교육비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으로서 교육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 세 과세를 통한 세금의 인상으로 오히려 사교육의 상대가격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사교육비에 대한 연구에서 사교육의 주된 원인이 입시경쟁에 있으므로 입시경쟁완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견해(김홍주 외 1998, 윤철경 1990)도 빈번히 제기 되었지만 근자의 대입경쟁완화를 유도한 입시정책은 사교육비 지출 절감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사교육비문제 해결방안을 다른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는 김시월·박배진(1999)에서는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가계의 대처방안을 연구하였다. 대처방안을 재무관리대처행동, 절약행동, 적극적인 소득창출행동으로 유형화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금융자산이 적고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가계가 재무관리를 통하여 대처하는 경향이 있고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강남에 거주하는 가계에서 절약행동을 통한 대처유형을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금융자산이 많고 거주지역이 강남인 가계가 소득창출을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에 대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기에 해당하는

가계에 대해 단기에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며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윤금(1997)은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1990-91 소비지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적자본 투자와 관련된 지출이 편모가계와 양친부모가계 사이에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결과 편모가계에서 유의하게 인적자본 관련 지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한 총 교육비 지출 수준은 총 가계소득의 1.9%로 나타나 한국의 9.5%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경향을 종합하면 선행연구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특히 사교육비지출에 대해 획단면적인 미시자료를 분석하여 학교급별로 교육비지출 상태와 관련된 가계의 특성 및 부담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시가계연보의 가계평균지출을 사용하여 우리 나라 가계의 교육비지출 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의 축적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III. 자 료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이다. 도시가계조사결과는 도시가계연보를 통하여 제공되는데 20여년에 걸쳐 가계의 교육비 지출 추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매년 발간되는 도시가계조사 연보에 나타난 연간 가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품목명과 금액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가계부 기입은 연중 내내 이루어지므로 도시가계연보가 제공하고 있는 연간 월 평균 지출 수준은 계절적인 영향이 배제된 자료이다.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비지출항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품목별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982년 이전에는 교육비항목을 세분하지 않고 단일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되지 않았다. 1982년부터 교육비가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방구로 세분되었다. 세분화에 따른 교육비 항목분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매우 유용한 가계의 교육비 지출 자료를 제공한다. 표본이 전국규모라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고 가계부 기입방식에 따른 조사라서 기억에 의존하여 비목별 지출 액수를 기입하여 조사한 자료에 비하여 자료의 정확도가 높다. 또한 다른 교육비지출 조사(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지출만 조사한 것에 비해 도시가계조사자료는 가계의 공교육, 사교육비 지출을 모두 포함한 총교육비지출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가계조사는 1963년이래 매년 조사자료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다년간에 걸친 시계열적인 추이의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도시가계조사는 가구구성원이 1인인 단독가구와 가구의 구성이 가족을 위주로 하지 않는 혼성된 가구는 제외하였는데 교육비 지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적합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혼자와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단신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표 1> 도시가계조사의 교육비 항목분류(1982년 이후)

세분류	세세분류
납입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국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사립대학(교), 대학원
교재비	중학교교과서, 고등학교교과서, 기타학교교재, 참고서, 가정학습지, 학습용테이프
보충교육비	입시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기타예체능계학원, 태권도학원, 기타체육계학원, 사무, 전산학원, 기타보충교육, 도서관, 기타교육비
문방구	

이러한 가구로부터는 통상적인 교육비 지출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없는 이들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어 있고 그 수가 증가한다면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의 감소 없이도 평균적인 가계의 지출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의 연평균 교육비지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전국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농가와 어가의 교육비 지출은 제외되었다. 신혼기 가계나 자녀가 영유아인 가계, 노부부 가계 등 학생이 없는 가계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출이 없을 수 있는데 집계된 평균 지출 수준은 학생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전 가구에 대한 것이므로 학생이 존재하고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계의 실질적인 지출 수준을 나타내지 못한다. 즉,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도시가계조사의 교육비 지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다른 유사한 조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지금까지 1977, 1982, 1985, 1990, 1994, 1998년 6차례에 걸쳐 사교육비 지출 조사를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개념은 과외비뿐 아니라 학교 교육에 수반되는 제 비용- 교재비 및 참고서비, 문방구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식사비, 하숙, 기숙사비, 자취비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7)과 교육인적자원부(1999년, 2000년)에서는 과외비에 한정하여 초중고등학생

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과외비를 <표 2>에 정리하였다. 과외비만을 조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결과는 의외로 큰 차이를 보인다. 조사대상에 소비자보호원 조사는 만 3세 아동부터 학습을 학원에 의존하는 재수생을 포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조사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사대상의 차이 외에 조사시기가 IMF 전·후라는 점에서 차이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과외참여율과 과외비 지출 수준이 한국소비자보호원 (교육인적자원부)의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소비자보호원) 결과에 비하여 매우 높게(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가계의 소비지출수준(1373988원, 1995년 불변가격)이 1997년 수준(1359070원, 1995년 불변가격)보다 높아진 점(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을 감안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0년 학생 1인당 과외비 지출 수준이 199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1997년 수준의 65%에 불과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서 과외비가 실제보다 축소되었거나 소비자보호원조사에서 과외비가 과대하게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는 사교육비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었고 조사대상도 유치원부터 대학원 재학생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1인당 지출금액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가계조사에서 사교육비는 각종 과외수업비 이외에 교재비 및 참고서비, 문방구비, 단체활동비를 포함하고 있어서 교육부와 소보원의 과외비보다는 넓게 정의되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표 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과외비(1995년 불변가격)

조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교육인적자원부
	년도	1982	1985	1990	1994	1998	
과외참여율	-	-	-	-	-	85.2%	55.1%
지출평균	28,328	53,522	82,966	121,061	167,268	87,184	55,491

<표 3> 도시가계조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1995년 불변가격)

년도	1985	1990	1995	2000
월평균지출	14,250	42,353	78,553	103,262

정의보다 축소된 개념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과외비만 조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결과보다 크고 한국교육개발원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나야 하는데 도시가계조사로부터 추정된 학생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sup>1)</sup>를 보면 2000년에 10,3262원으로 9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16,7268보다 낮고 교육인적자원부 2000년 5,7031원, 소보원 1997년 8,7184원보다 높게 나타나 타당한 수치를 제공한다(표 3). 도시가계조사에서 연간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이 교육시키는 자녀가 없는 가계를 포함하여 낮게 나타나지만 표본에 단독가구를 배제한 점을 감안하면 시계열적으로 가계의 전반적인 교육비 지출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계조사는 전국 가구의 소득 및 지출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구에 대한 소득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에 한해서 소득 자료가 제공된다.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자 가계는 2000년 현재 전체 조사가구 5,220가구 중 2,916가구로 약 56%정도이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소득을 알 수 있는 근로자 가구로 한정하기보다는 소득자료를 지출자료로 대체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전체 조사 가구의 지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소득수준과 지출 수준간에는 상관계수가 1에 육박할 정도로 큰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상의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도시계연보에 나타난 지출액은 당해 연도의 명목가치이다. 실질가치로 교육비 지출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비 물가변동 자료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연도별 공교육과 사교육비 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 1. 분석방법과 용어의 조작적 정의

가계의 교육비 지출 변화의 분석에 사용된 방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총교육비:** 가계의 공교육비지출과 사교육비지출을 합한 교육비지출 전체 금액이며 공교육비는 도시가

계조사 교육비 항목분류 가운데 유치원 및 각급 학교 납입금에 대한 지출 금액을, 사교육비는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방구비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다.

**교육비물가:** 통계청이 산출한 연간 물가지수-1995년 가격을 100으로 하여 연도별 물가의 변동을 나타낸-를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납입금 물가지수를 공교육 물가로, 기타교육 물가지수를 사교육비 물가로 사용하였다.

**실질지출:** 지출 당시의 화폐량으로 표시된 명목지출에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지출수준으로서 명목지출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명목지출/물가지수]×100).

**공(사)교육비 지출탄력성:** 소비지출 변화율에 대한 공(사)교육비지출 변화율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비지출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대리지표로 사용되었다. 적용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Delta Q/\Delta Y] \times [Y/Q]$ . 여기서  $\Delta Q=Q_t-Q_{t-1}$ ,  $\Delta Y=Y_t-Y_{t-1}$ ,  $Q=(Q_t+Q_{t-1})/2$ ,  $Y=(Y_t+Y_{t-1})/2$ ,  $Q_t$ 는 t해의 공(사)교육비지출,  $Y_t$ 는 t해의 소비지출을 나타낸다.

**공(사)교육비 가격탄력성:** 공(사)교육비 물가수준의 변화율에 대한 공(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율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며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Delta Q/\Delta P] \times [P/Q]$ . 여기서  $\Delta Q=Q_t-Q_{t-1}$ ,  $\Delta P=P_t-P_{t-1}$ ,  $Q=(Q_t+Q_{t-1})/2$ ,  $P=(P_t+P_{t-1})/2$ , 여기서  $P_t$ 는 t해의 공(사)교육비 물가지수를 나타낸다.

**증가율:** 전년대비 수준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 $[Q_t+Q_{t+1}]/Q_t$ )

## IV. 분석 결과

### 1. 가계의 교육비 지출 추이

1975년부터 2000까지 가계의 교육비 지출 수준을

1) 산출 방법은 「IV. 분석결과(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추이)」에서 설명하였다.

전년대비 증가율과 함께 <표 4>에 제시하였다. 명목 가치를 살펴보면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국가적인 외환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36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64년부터 2000년까지 36년 동안 가계의 교육비 지출수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에 달한다. 1997년 경제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가계의 평균 교육비 지출수준은 약 15만원으로 나타나 전년도의 16만원에 비하여 약 1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가계의 월평균 교육비지출은 약 18만원으로 나타나 경제위기 이전의 지출수준보다 높아졌다.

가계의 평균 교육비 지출 수준을 1995년 가격 기

준의 실질가치로 살펴보면 지난 25년간 실질 교육비 지출수준은 매년 평균 약 5%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1984년 이전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84년부터 92년 사이 교육비지출은 84년 약 54천원에서 92년 약 118천원으로 두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경제위기를 맞아 실질교육비지출이 1998년에 약 10% 감소한 것을 예외로 하면 이후로도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교육비 지출이 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한 것은 80년대 후반부에 유치원생의 취원율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에 18.9%에 불과하던 취

<표 4> 가계의 총교육비 지출

년도	명목(원)	증가율(%)	실질*(원)	증가율(%)
1975	4240	-	39411	-
1976	5640	33.02	38897	-1.31
1977	5990	6.21	36432	-6.34
1978	7060	17.86	38703	6.23
1979	10083	42.11	48043	24.13
1980	11274	12.37	45613	-5.06
1981	13877	23.09	44716	-1.97
1982	17814	28.37	48839	9.22
1983	18884	6.01	48528	-1.05
1984	21886	16.90	54062	11.87
1985	24686	12.79	58590	8.38
1986	27660	12.05	62769	7.13
1987	32927	19.04	70887	12.93
1988	35615	8.16	70478	-0.58
1989	47650	33.79	86913	23.32
1990	57641	20.97	93573	7.66
1991	69846	21.17	103386	10.49
1992	87193	24.84	117855	13.99
1993	95654	9.70	117391	0.39
1994	106110	10.93	119673	1.94
1995	127027	19.71	127027	6.15
1996	149334	17.56	132506	4.31
1997	162403	8.75	134440	1.46
1998	151439	-6.75	121540	-9.59
1999	164242	8.45	129223	6.32
2000	182400	11.06	136629	5.73
평균증가율		16.69%		5.40%

\* 실질가치는 1995년 가격 기준

원율이 1990년에는 31.6%로서 12.7%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에서 1995년 사이 대학교 진학률도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에 32.2%였으나 95년에는 51.4%로 18% 포인트나 증가하였고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현재 68%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Stat-Korea: <http://www.stat.go.kr>).

가계의 총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표 5>에 정리하였다. 명목가치로 교육비 지출 비중을 보면 90년까지 8% 이었으나 2000년에 11%로 증가하였고 실질가치로 보면 80년 이래 평균 10% 수준을 유지하여 변동을 보이지 않지만 연령별로 나타나는 양태는 다소 다르다.

### 1) 연령별 가계의 교육비 지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교육비 비중을 고찰하였다. 가계에 학생이 있고 교육비 지출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30대부터 50대 초반가구의 교육비 지출 수준과 비중을 <표 6>에 정리하였다<sup>2)</sup>. 전반적으로 월평균 교육비지출 수준은 전 연령대에 거쳐 증가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교육비지출 비중은 연령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교육비 지출 수준과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인 45-49세 가계의 교육비지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현재 가계의 월평균 교육비지출이 244천원,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37%로서 80년에 비하여 지출 수준은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지출 비중은 1980년 22.14%보다 약 7% 포인트(약 1.4배) 감소하였다. 50대 초반 가계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1980년에 교육비 비중이 가계소비지출의 4분의 1에 달하였던 것이 이후에는 감소하여 2000년 현재 9.86%로 낮아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가계에서는 40대와 50대 가계에 비하여 지출 수준과 비중이 낮지만 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35-39세 연령대에서는 2000년 현재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145천원으로 소비지출의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년 전에 비하여 지출수준은 약 5배, 지출 비중은 1.7배 증가하였다. 80년대까지는 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장 큰 연령대는 45세 이후 50대 초반-대체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으로 교육비 지출 수준도 높고 교육비지출 비중도 20%가 넘는다. 90년대 이후에는 50대 초

2) 연령별 자료는 자영자를 제외한 근로자 가구에 한하여 제공됨

<표 5> 총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명목가치	0.07	0.06	0.08	0.08	0.10	0.11
실질가치	0.12	0.10	0.10	0.10	0.10	0.10

<표 6> 연령별 교육비지출 및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도시근로자 가구(1995년 기준, %)

구 分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1975	9667	3.56	20356	6.62	65902	17.48	88397	21.25	76499	21.27
1980	9920	2.55	27399	6.32	72607	15.17	120959	22.14	108129	20.15
1985	16699	3.45	41138	7.49	84282	13.96	121918	18.85	121557	17.91
1990	35648	4.80	80700	9.02	139989	13.32	173175	16.11	129917	11.34
1995	54002	4.85	141767	11.27	204417	16.07	224577	16.56	155826	10.53
1997	62118	5.23	139007	10.86	209141	14.78	240480	15.75	191716	11.46
1998	58464	5.82	116615	11.07	181003	15.34	229695	17.32	165524	12.55
2000	69494	5.76	144631	10.94	199553	14.39	243622	15.37	154891	9.85

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40대 연령 대의 부담이 커지고 30대까지 교육비 부담이 확산되었다.

## 2) 학생1인당 교육비 지출 추이

여자 1명당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1975년 3.4명, 1980년에 2.8명, 1985년에 1.7명, 90년에 1.6명, 95년에 1.7명, 1999년 현재 1.5명으로, 7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KOSIS: <http://kosis.nso.go.kr>). 출산율의 감소는 자녀 교육비지출의 감소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교육비 지출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자녀 한 명에 대하여 보다 많은 교육비를 지출했음을 의미하는데 다음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추이를 살펴보았다. 가구당 학생수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한 가구수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전체 학생수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1996년 가구당 평균 학생수는

<표 7> 가구당 학생수

년도	(1) 가구수*	(2) 학생수**	가구당 학생수(1)/(2)
1975	6367	9223.00	1.45
1980	7470	10617.00	1.42
1985	8751	11466.00	1.31
1990	10167	11422.00	1.12
1995	11133	11023.00	0.99
2000	14318	11368.00	0.79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http://kosis.nso.go.kr>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http://www.stat.go.kr>

1.45명이었던 것이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90년에 1.12명, 95년에 0.99명, 그리고 2000년에 0.79명으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에 나타난 가구당 학생수를 적용하여 학생 한 명당 교육비 지출을 75년부터 5년 주기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표 8), 90년도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2000년에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공교육비 지출은 약 1.71배 증가하였고 사교육비 지출은 약 두 배가 넘는 2.24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자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성향을 반영한다.

## 2. 가계의 공교육비 지출 추이

### 1) 가계의 공교육비 지출수준 및 지출비중

납입금의 형태로 지출하는 가계의 공교육비 지출 수준은 명목가치로 살펴보면 1982년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난 1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7%에 달한다. 실질가치로는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18년간 연평균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2-1985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이 3.3%, 1996-2000년 사이에는 2.3%로 나타나 다른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총 교육비 가운데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에 명목가치로 70%, 실질가치로는 79%로서 전체 교육비의 약 4분의 3가량이나 되었다. 그러나 공교육비의 비중은 감소하여 1995년과 1996년에는 39%로 낮아졌다. 경제위기 이후 교육비 지출이 다

<표 8> 학생1인당 교육비 지출

년도	총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명목	증가율	실질	증가율	90수준 대비율	명목	증가율	실질	증가율	90수준 대비율	명목	증가율	실질	증가율	90수준 대비율
1975	2927	-	27102	-	0.33	-	-	-	-	-	-	-	-	-	-
1980	7932	171.00	32114	18.49	0.39	-	-	-	-	-	-	-	-	-	-
1985	18841	137.52	44752	39.35	0.54	12093	-	32098	-	0.79	6748	-	14250	-	0.34
1990	51308	172.32	83292	86.12	1.00	22522	86.24	40592	26.46	1.00	28786	326.61	42353	197.2	1.00
1995	128295	150.05	128295	54.03	1.54	49741	120.86	49741	22.54	1.23	78553	172.89	78553	85.47	1.85
2000	229733	79.07	172085	34.13	2.07	95596	92.19	69273	39.27	1.71	134137	70.76	103262	31.45	2.24

&lt;표 9&gt; 가계의 공교육비 지출

년 도	공교육비 수준				공교육비 비중	
	명목	증가율	실질	증가율	명목	실질
1982	12502	-	38340	-	0.70	0.79
1983	12895	3.14	36887	-3.79	0.68	0.76
1984	14247	10.48	39122	6.06	0.65	0.72
1985	15845	11.22	42057	7.50	0.64	0.72
1986	17336	9.41	44375	5.51	0.63	0.71
1987	20170	16.35	48838	10.06	0.61	0.69
1988	19698	-2.34	43660	-10.60	0.55	0.62
1989	23000	16.76	47003	7.66	0.48	0.54
1990	25302	10.01	45603	-2.98	0.44	0.49
1991	29464	16.45	47980	5.21	0.42	0.46
1992	36169	22.76	52280	8.96	0.41	0.44
1993	40670	12.44	52523	0.46	0.43	0.45
1994	43220	6.27	49922	-4.95	0.41	0.42
1995	49250	13.95	49250	-1.35	0.39	0.39
1996	57753	17.26	51019	3.59	0.39	0.39
1997	65526	13.46	53754	5.36	0.40	0.40
1998	67166	2.50	53992	0.44	0.44	0.44
1999	73942	10.09	57587	6.66	0.45	0.45
2000	75861	2.60	54972	-4.54	0.42	0.40
평균	10,71		2,18		0.50	0.54

소 감소하면서 공교육비의 비중이 44-45%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교육비 지출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200년에는 40%로 낮아졌다.

연령별 공교육비 지출추이를 살펴보면(표 10), 45세 이후 연령대에서 공교육비 지출 수준과 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50세 이후 가계에서 85년에는 전체 교육비의 81.9%를 공교육비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45-49세 가계에서도 전체 교육비 지출의 절반

가량이 공교육비 지출이다. 공교육비 지출 수준은 연령이 낮은 가계에서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 초반 가계에서 40.1%로 나타나 30대 후반(24.4%)과 40대 초반(29.4%) 가계에 비하여 높은데 이는 유치원 납입금 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가계의 공교육비 지출탄력성

1982년이래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수준은

&lt;표 10&gt; 연령별 납입금지출 및 교육비총 납입금 비중-도시근로자기구(1995년 불변가격, %)

구 分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지출액	비중								
1985	9295	55.66	19679	47.84	55400	65.73	96244	78.94	99514	81.87
1990	17407	48.83	27300	33.83	53656	38.33	99064	57.20	78164	60.16
1995	20090	37.20	28468	20.08	54734	26.78	109709	48.85	98919	63.48
1997	24662	39.70	30952	22.27	59425	28.41	113977	47.40	122149	63.71
1998	26619	45.53	31555	27.06	54562	30.14	110481	48.10	112793	68.14
2000	27921	40.18	35346	24.44	58682	29.41	120949	49.65	98330	63.48

1997년 11월 외환위기 선언 직후를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하였고 2000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다. 지난 18년간 가계 소비지출은 명목가치로 연평균 11.28%, 실질가치로 연평균 6.21% 증가하였다. 소비지출을 같은 기간동안의 가계의 공교육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표 9)과 비교하면 명목가치로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질가치로는 공교육비 지출증가율 2.18%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실질가치로는 공교육비의 지출탄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공교육비의 지출 탄력성을 산출한 결과 명목가치로는 0.93으로 나타났다(표 14). 실질가치로 보면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던 1997년에 기형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 연평균 실질소비지출은 0.1% 감소였지만 연평균 실질공교육비 지출은 5.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97년 11월 말에 외환위기가 선포되고 가계소득과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향이 연평균 소비지출에 반영된 반면 공교육비는 96년이래로 상승세를 타고 증가한 수준이 납부금의 형태로 97년 전반부부터 이미 지출된 높은 수준이 연평균 공교육비지출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실질가치로 본 공교육지출탄력성은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1983, 1998, 1990, 1994, 1995, 1997, 1998, 2000년에 음의 부호로 나타나는데 97년과 98년을 제외하면 총소비지출이 증가한 반면 공교육비지출은 감소한 결과이다. 공교육비지출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가구내 자녀수와 진학률의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는 공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비교적 커다란 공교육비지출을 유발하는 유치원 취원율과 대학교 진학률의 증가는 공교육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충되는 이 두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공교육비 지출탄력성의 부호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비는 가계가 자유재량으로 지출수준을 정하기보다는 마치 세금처럼 일정한 수준이 강요되는 강제적인 지출이다. 1997년과 1998년의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총소비지출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비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가계가 교육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나타내는 한편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공교육비가 가계에 주는 부담이 매우 커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공교육비 지출탄력성은 85년과 95년을 제외하면 절대 값이 1보다 작고 평균 0.2(97년 제외)으로 나타나 필수재라 할 수 있다.

### 3) 가계의 공교육비 가격변화와 가격탄력성

지난 20년 동안 공교육비(납입금)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4.93% 증가한데 비하여 공교육비 물가지수는 그 두 배가 넘는 11.96%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90년대에 보다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 납입금 물가수준은 138로서 90년 수준 55.48과 비교하면 10년동안 2.5배 증가하였다. 물가상승은 가계지출에 부담을 주게되는데 다음은 이러한 급속한 공교육가격 상승이 가계의 공교육비지출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공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표 11).

82년부터 2000년까지 공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평균 1.49로 나타났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탄력성은 음의 부호를 나타내야 하는데 1988년을 제외하고는 공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 부호는 모두 양으로 나타나 공교육비 물가상승에 따라 공교육비지출을 매우 탄력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에 대한 가계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고 공교육비지출은 자유재량적이기 보다는 강제적인 지출임을 반영한다. 가격탄력성이 대체로 양의 부호이고 1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변화에 대해 실질지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질가치로도 공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산출하여 보았다. 지난 18년간 공교육비지출 가격탄력성은 평균 0.5로 나타나 공교육비 가격 1% 증가에 대해 공교육비지출은 실질가치로 연평균 0.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지난 18년간 가계는 공교육비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표 11〉 공교육비의 물가수준 및 가격탄력성

년도	물가지수	상승률	가격탄력성(명목)	가격탄력성(실질)
1982	32.61			
1983	34.96	7.21	0.44	-0.56
1984	36.42	4.17	2.44	1.44
1985	37.68	3.46	3.13	2.13
1986	39.07	3.69	2.48	1.48
1987	41.30	5.72	2.72	1.72
1988	45.12	9.24	-0.27	-1.27
1989	18.93	8.46	1.91	0.91
1990	55.48	13.39	0.76	-0.24
1991	61.41	10.68	1.50	0.50
1992	79.18	12.66	1.72	0.72
1993	77.43	11.92	1.04	0.04
1994	86.58	11.81	0.55	-0.46
1995	100.00	15.51	0.91	-0.09
1996	113.20	13.20	1.28	0.28
1997	121.90	7.69	1.70	0.71
1998	124.40	2.05	1.22	0.22
1999	128.40	3.22	3.03	2.04
2000	138.00	7.48	0.36	-0.64
평균		11.96	1.49	0.50

실질적으로 공교육비지출을 증가시켜왔다.

### 3.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추이

#### 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수준 및 지출비중

2000년 가계의 평균 사교육비지출 수준은 명목가치로 103,509원으로 1982년 수준과 비교하면 19배, 1990년 수준의 3배 이상이다. 1995년 기준 실질가치로 보면 2000년 현재 월 평균 81,993원으로 1982년 수준의 6배, 1990년 수준의 1.7배에 해당한다. 1982년과 2000년 사이 명목가치로 18.9%, 실질가치로 11.4%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 우리나라 가계 교육비 지출 수준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사교육비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7년과 199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년 20%에 육박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1997년 경제 위기를 맞아 가계는 사교육비지출을 크게 감소시켜서 1998년 사교육비 실질지출은 전년에 비해 16.4% 줄어들었고 94년 수준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위축되

었던 사교육비지출은 금방 예전수준을 회복하여 2000년 지출수준을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총 교육비지출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에 들어서서 공교육비보다 높아졌고 2000년 현재 약 60%를 차지한다.

연령별 사교육비 지출변화 추이는 〈표 13〉에 정리되었다. 대체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2000년 현재 40-44세 가구에서 142,742원, 45-49세 가구에서 121,885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큰 연령대는 35-39세 가구로 90년까지는 50-54세 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95년과 2000년 지출 수준은 50대 초반 가구의 약 2배, 또한 90년 수준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구주 연령 44세 이하 가구는 대체로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총교육비지출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35-39세 가구에서 사교육비지출은 전체교육비 지출의 76.8%, 40-44세 가구에서는 71.5%를 차지한다.

〈표 1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년도	사교육비 수준				사교육비 비중	
	명목	증가율	실질	증가율	명목	실질
1982	5313	-	12972	-	0.30	0.27
1983	5989	12.72	13663	5.33	0.32	0.28
1984	7639	27.55	17322	26.78	0.35	0.32
1985	8841	15.74	18672	7.79	0.36	0.32
1986	10325	16.79	20564	10.14	0.37	0.33
1987	12757	23.55	24161	17.49	0.39	0.34
1988	15918	24.78	28041	16.06	0.45	0.40
1989	24650	54.86	39946	42.46	0.52	0.46
1990	32339	31.19	47581	19.11	0.56	0.51
1991	40381	24.87	54600	14.75	0.58	0.53
1992	51024	26.36	64601	18.32	0.59	0.55
1993	54985	7.76	64147	-0.70	0.57	0.55
1994	62891	14.38	69231	7.93	0.59	0.58
1995	77777	23.67	77777	12.34	0.61	0.61
1996	91582	17.75	81551	4.85	0.61	0.62
1997	96878	5.78	80799	-0.92	0.60	0.60
1998	84272	-13.01	67526	-16.43	0.56	0.56
1999	90301	7.15	71667	6.13	0.55	0.55
2000	103509	17.95	81993	14.41	0.58	0.60
평균		18.88		11.44	0.50	0.47

〈표 13〉 연령별 사교육비지출 및 교육비중 사교육비 비중-도시근로자기구(1995년기준, %)

구분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지출액	비중								
1985	7466	44.71	20950	50.93	30919	36.68	31911	26.17	28986	23.85
1990	18100	50.77	50856	63.02	83073	59.34	76084	43.93	53940	41.52
1995	33912	62.80	113299	79.92	149683	73.22	114868	51.15	56908	36.52
1997	37511	60.39	108584	78.11	150294	71.86	126408	52.56	68967	35.97
1998	31837	54.46	84974	72.87	126326	69.79	119201	51.90	52828	31.92
2000	41759	60.09	111091	76.81	142742	71.53	121885	50.03	54723	35.33

## 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탄력성

1982년에서 2000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은 명목가치로 연 평균 18.9%, 실질가치로 11.4% 증가하여 같은 기간동안 소비지출 증가율(명목 11.3%, 실질 6.2%)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평균 지출탄력성은 명목가치로 1.49, 실질가치로 1.5로 나타나 사치재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변화 추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95년까지 사교육비의 지출탄력성은 대체로 1.5이상의 높은 수준

(사치재)을 나타냈고 특히 경제위기가 닥친 97년에 실질소비지출이 전년에 비해 0.08% 감소한 것에 비하여 사교육비지출은 실질가치로 0.92%-소비지출감소율의 10배 이상-감소하여 기형적으로 높은 지출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8년 0.92, 1999년 0.55, 2000년 0.65로서 1998년 이후부터 사교육비의 지출 탄력성은 1이하(필수재)로 나타난다. 1998년에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실질가치로 무려 16.5%나 감소하여 94년 수준보다 낮아졌는데 경제위기를 맞아

〈표 14〉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 탄력성

년도	공교육비		사교육비	
	명목	실질	명목	실질
1982	-	-	-	-
1983	0.37	-0.76	1.41	1.01
1984	1.20	0.98	2.93	3.92
1985	1.43	1.45	1.97	1.51
1986	0.96	0.81	1.65	1.45
1987	1.09	0.88	1.52	1.48
1988	-0.15	-1.29	1.41	1.71
1989	0.65	0.40	1.80	1.91
1990	0.67	-0.50	1.89	2.87
1991	0.86	0.58	1.25	1.57
1992	1.45	1.07	1.66	2.09
1993	1.46	0.14	0.93	-0.21
1994	0.55	-1.02	1.21	1.53
1995	1.25	-0.22	2.03	1.92
1996	1.33	0.49	1.36	0.66
1997	2.93	-62.67	1.31	11.12
1998	-0.20	-0.02	1.13	0.92
1999	0.83	0.60	0.59	0.55
2000	0.12	-0.22	0.77	0.65
평균	0.93	0.20*	1.49	1.50**

\* '97년 탄력성 제외, \*\* '97년 탄력성 제외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거품이 제거된 이후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 3) 가계의 사교육비 가격변동과 가격탄력성

사교육비 물가도 일반 소비자물가에 비하면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1995년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2000년 사교육비 물가지수는 129.90로서 1982년 수준에 비하면 3배 이상, 1990년 수준에 비하면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1982-2000년 사이 사교육비 물가는 연평균 7.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동안 사교육비지출 연평균 증가율-명목 18.88%, 실질 11.44%-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는 사교육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사교육비지출을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도 공교육비지출과 마찬가지로 양의 부호이고 가격탄력성의 크기도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을 시사한다.

〈표 15〉 사교육비의 물가수준 및 가격탄력성

년도	물가지수	상승율	가격탄력성 (명목)	가격탄력성 (실질)
1982	40.96			
1983	43.83	7.02	1.76	0.77
1984	44.10	0.61	39.92	38.94
1985	47.35	7.37	2.05	1.06
1986	50.21	6.04	2.64	1.65
1987	52.80	5.16	4.19	3.20
1988	56.77	7.51	3.04	2.05
1989	61.71	8.71	5.16	4.20
1990	67.97	10.14	2.79	1.81
1991	73.96	8.82	2.62	1.63
1992	78.98	6.79	3.54	2.55
1993	85.72	8.53	0.91	-0.09
1994	90.84	5.98	2.31	1.31
1995	100.00	10.08	2.21	1.21
1996	112.30	12.30	1.41	-0.14
1997	119.90	6.77	0.86	-4.47
1998	124.80	4.09	-3.48	6.22
1999	126.00	0.96	7.22	4.41
2000	129.90	3.10	5.40	3.71
평균		7.78	2.63	1.63

1982년부터 2000년 사이 사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평균 2.63<sup>3)</sup>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는 사교육비 물가상승에 대하여 매우 탄력적으로 사교육비지출을 증가시켜 왔다. 시기별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2년 이전까지 사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이 대략적으로 2.5에서 5 이상으로 매우 탄력적이지만 이후 점차로 줄어들어서 1996년에 1.41 1997년 0.86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경제위기 선언 이듬해인 1998년 사교육비 물가상승에 대하여 사교육비지출이 감소하여 가격탄력성이 -3.48로 나타났고 이 해에 매우 탄력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9년과 2000년 사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7.22과 5.40로 이전의 어느 해

3) 1984년 사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예외적으로 큰 수치를 나타내므로 평균의 산출에서 제외하였음. 1984년 사교육비물가는 전년도에 비하여 0.61%로 미미한 증가를 나타낸 반면 사교육비지출수준은 전년도에 비하여 26.78% 증가한 결과임.

보다 높은 수준이다.

오랜 기간동안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출을 탄력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탄력성이 1 이상이므로)은 사교육에 대해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존재함을 반영한다. 사교육비 실질지출의 가격탄력성은 과거 18년동안 평균 1.29로서 사교육비 물가 1%증가에 대해 사교육비 실질지출은 1.29%로 매우 탄력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2000년에는 3.71로 탄력성이 보다 높아졌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를수록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사교육비 물가가 상승하면 다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우리나라의 가계에 부담을 더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연도별 월평균 소비지출자료를 사용하여 과거 약 20동안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2년이래 가계의 총교육비지출은 실질가치로 연평균 5%, 공교육비지출은 2.2%, 사교육비지출은 11.4% 증가하였고(1995년 기준 실질가치) 2000년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 교육비 지출수준이 가장 높다. 교육비지출은 80년대 후반부터 유치원·취원율과 대학 진학률 증가와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였다. 둘째, 가구주 연령이 45-49세 가계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 2000년 현재 월평균 교육비지출은 약 24만원이고 이는 총소비지출의 15%를 차지하는데 80년의 12만원, 22%에 비하면 교육비 지출수준은 2배로 늘고 교육비부담은 7% 포인트 줄었다. 80년대까지는 연령대가 40대부터 교육비 비중이 10%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90년대부터는 가구주 연령이 30대인 가계에서도 교육비 비중이 10%를 넘기 시작했다.셋째, 학생1인당 총교육비 지출은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2배, 공교육비지출은 1.7배, 사교육비지출은 2.24배 증가하였다. 넷째, 총교육비 지출 가운데 공교육비지출 비중은 1982년

에 7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감소하여 2000년 현재 40%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50세-54세 연령대에서는 여전히 공교육비지출 비중이 보다 높다(2000년 현재 63.5%). 다섯째, 공교육비 지출탄력성은 평균 0.2로 나타나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탄력성은 평균 1.5로서 1보다 크지만 1998년 이후 지출탄력성이 1이하로 나타나 경제위기이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저점이 제거되고 필수적인 지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일반물가는 연평균 4.93%, 공교육물가는 11.96%, 사교육 물가는 7.78% 증가하여 교육비물가, 특히 공교육비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교육비지출이 명목가치로 연평균 17% 증가한데 비해 실질가치로 5% 증가에 그쳐서 교육비로 인해 가계가 받는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공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과거 20년 동안 평균 1.49, 사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2.63으로 나타나 교육비물가상승에 대하여 매우 탄력적으로 교육비지출을 증가시켰다. 특히 사교육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1999년과 2000년에 7.22, 5.40으로서 최근의 추이는 사교육비물가상승 1%에 대하여 사교육비실질지출을 4%나 증가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사교육 공급이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사교육에 대한 초과수요(excess demand)가 존재한다.

1980년 대입본고사 폐지와 과외금지조치를 필두로 80년대와 90년대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본고사 부활 및 폐지, 보충수업 부활 및 폐지, 내신성적제, 쉬운 수능 등-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교육비지출, 특히 사교육비지출은 줄기는커녕 늘어만 갔다. 이제까지 사교육비지출을 줄이게 했던 유일한 사전은 나라 전체를 곤궁에 빠트렸던 외환위기-경제적 악화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비지출은 필수적인 지출이고(지출탄력성이 나타난 바와 같이) 사교육에 대해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다(가격탄력성이 나타난 바와 같이). 따라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의 공급이 확대되지 않거나 교육에 대한 수요

가 절감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교육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이 늘면 교육비 물가도 동반하여 상승할 것이며 가계의 교육비 부담 또한 가중될 것은 분명하다.

입시제도와 과외학습 규제를 통해 사교육지출을 줄이고자한 것은 사교육수요(지출)의 원인이 입시 경쟁이라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입시제도와 과외규제가 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의 평준화교육으로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평준화된 학교수업이 버거운 학습부진 학생은 나름의 보충 수업을 필요로 할 것이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사교육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90년대 말 교육개혁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의 대학입학 정책도 오히려 각종 경시대회 수상을 목표로 하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필요하도록 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입시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 셈이다. 또한 사교육비지출은 아동 자녀를 둔 30대 가계에서도 확대되는 추세여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향을 나타낸 부모는 전체 응답자 4949명 가운데 73.8%에 달한다.

교육비 지출은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된 데서 비롯되는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가계의 교육비지출 문제는 가계의 교육에 대한 욕구수준을 낮추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 추이를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최선의 정책은 양질의 교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교육에 대한 가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입시정책을 조정하거나 보다는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통하여 교육의

안정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빈번한 교육정책의 변경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교육 수요는 늘어만 간다. 일관된 입시정책을 통해 교육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가 어떤 형태의 교육을 얼마만큼 필요한지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고 혼들리지 않을 때 설득력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학력별 임금 격차를 통하여 교육비 지출의 수익성의 변화를 개략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까지는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두 배가 넘는 임금을 받았지만 점차 감소하여 2000년 현재 대졸자의 임금수준은 고졸자에 비하여 약 1.5배 정도이다. 교육투자 수익성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연결된다는 지적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지만(박기백, 1998, 정영숙, 1997) 실제로 교육의 수익성에 대한 세밀한 정보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어떠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는 과열된 가계의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지출 수요의 조정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양질의 교육을 저가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의 공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야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규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공급에 있어서 사적인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다. 연구결과는 사교육시장에 초과수요가 존재함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사교육시장에서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결국 교육 기회가 소수의 고소득 가계에 집중된다. 특히 공교육 및 사교육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

인 교육부문의 가격 안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시장 작동 원리에 내맡겨진 사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없이는 가격안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임을 연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학습부진학생과 우수학생의 특별한 교육적인 수요와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려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공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소수의 자립형 고교의 운영은 극소수의 우수한 고소득층 자녀의 교육 요구만을 충족시킬 뿐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공공교육투자 규모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배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뜨거운 교육열이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욕구가 사회문제로 변질되지 않고 발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가계조사 자료가 교육비지출 자료로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는 이 자료를 통하여 지난 20년 동안 가계의 교육비 지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어 왔던 가계의 교육비지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다른 각도에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의 전체적인 윤곽의 변화와 교육비 지출 실태를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논의에 그치고 있다. 후속의 연구는 학교급별 또는 교육비지출 내역별로 그 변화 수준과 탄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교육비 지출 수요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의 교육비 지출 증가의 원인에 대해 본 고에서 제시되었던 논의에 대해 실증자료에 근거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가계의 높은 공교육 부담과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사교육지출이 저소득층 가계 자녀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공은배, 천세영(1990).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0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보고서. <http://www.moe.go.kr>
- 김시월, 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0), 67-79.
- 김인숙,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7-149.
- 김홍주, 한용경, 김현철(1999). 한국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추세. *교육학연구* 37(4), 307-328.
- 문숙재, 김순미, 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2), 171-184.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재정논집*, 13(1), 149-163.
- 박기백(1998). 공사교육비와 조세. *재정논집*, 5(1), 1-21.
- 박배진(1997).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철경(1990). 사교육비와 교육의 불평등. *한국교육연구소 심포지움자료집*, 77-100.
- 이정우(2001). 교육개혁: 무엇이 잘못되었나? 창작과 비평, 봄호.
- 이윤금(1997). 미국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대한가정학회지*, 35(4), 229-241.
- 정영숙(1996). 개인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한국소비자학회지*, 1-13.
- 정영숙(1997). 사교육비와 교육문화의식. 97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6-85.
- 정영숙(1999).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20(4), 61-73.
- 통계청(2001). 도시가계조사 1963-2000(CD).